



서울시립대학교
18대 총여학생회(건)

2002 새내기 새로배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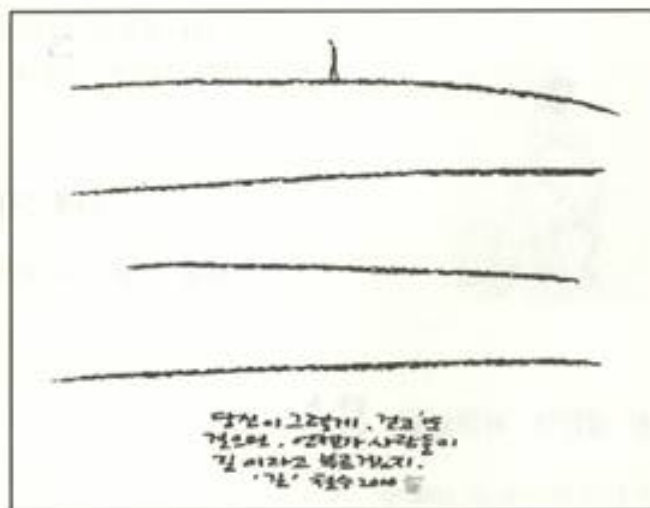
내·안·의

樂(악)

소리)



18대 총여학생회



그러나,
 여자 남자 함께 가는 이 세상은
 누구나 우주의 주인으로
 태어난다네
 누구나 이 땅의 주인으로
 걸어갈 수 있다네

평등한 부모 자식으로 아이 속에서
 또 하나의 문화 제 12 1985

총여학생회를 소개합니다.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새터성문화를 되돌아 본다.



영화평 고양이를부탁해
호주제를 폐지합시다.



여성학 강좌 소개
학교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들

QUIZ !QUIZ
새터 ING

총여학생회를 소개합니다.



비교적 자유롭고 평등한 공간이 대학에서도 불평등한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학교와 학생, 선배와 후배, 교수와 학생, 그리고 남학생과 여학생 등등... 대학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학생을 대표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학생의 권리를 위해 일하는 곳이 학생회이며 특히 여학생의 문제들,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바로 총여학생회입니다. 총학생회가 있는데 왜 총여학생회가 필요하나구요? 남학생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여학생의 특수한 문제들에 대하여 보다 전문적으로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독자적인 대표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총여학생회는 그러한 여학생의 문제들 - 여학생의 복지, 취업문제, 성폭력문제 등등 학내에서부터 조금이라도 나은 방향으로 풀어내기 위해 활동하는 공간입니다..



2002년, 18대 총여학생회는...



여학생의 주체적인 활동은 중심의 소리를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긍정하고 새로운 삶의 영역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여학생의 목소리로 다른 자리에 있는 이들과 소통하고 토론하고 공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원하는 대학을 획일성이 가져오는 잿빛이 아니라 다양성이 가져오는 무지개 빛으로 만들어 갈수 있다.

여기서 총여학생회가 해야할 역할은 이제까지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여학생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그 공간에서 다른 관심사를 가진 여학생들 사이에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2002년의 약속



여학생의 잠재된 힘/ 가능성 드러내기

우 여선배 · 여교수님과의
만남 시도
우 세미나실 개방
우 예산자치제 확충 및
보완



여학생의 일할 권리 찾기

우 여대생 취업! 그 좁은 틈새를 뚫기 위하여
- 학교측에 요구/하/기

* 1·2학년 : 여학생을 위한 진로탐색 프로그램

* 3·4학년 : 여학생들 자기 특성 개발, 성차별
대처 프로그램

우 여학생의 일할 권리 찾기 - 함/께 고민하기



쾌적한 우리의 일상을 위하여



우 학생회관 여학생 휴게실 이대로 놔둘 수 없다.

- 쉼터 청결 문/제/있/다

여학생 휴게실 청결 문제에 관한 대책을 마련
요구.

ANTI - Sexual violence

!

우 반(反)성폭력 학칙 제정 마무리

학내 성폭력은 학내 구성원의 성적 자율권
뿐만 아니라 대학 내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
해할 수 있다. 총여학생회에서는 학내 성폭
력 근절을 위해서, 잘못된 학내 성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그
중의 하나로 반(反)성폭력 학칙 제정 운동
을 진행하였다. 반(反)성폭력 학칙 제정은,
학내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
치이다.



총여학생회는 항상 얼려있습니다.



운동 기구 대여

총여에 왜 운동기구?! 여학생들은 대부분 운동하고 담쌓고 지내겠거니하지만, 이것도 우리 사회 통념이 아닐까요? 여학생들은 그저 조숙하게(?) 자라도록 교육받았기 때문에, 지금 사실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금씩 운동과 친해진다면 운동하는 게 낫선 일도 아니죠, 그리고 운동하면 건강에도 좋다는데~ 음.. 처음부터 어려운 운동이 무리일 수도 있으니까. 자 쉬운 것부터 해봅시다. 총여에 배드민턴 채와 탁구 라켓이 있어요. 사진 있는 신분증이 있으면 빌리실 수 있습니다.

설마 설마가 진짜랍니다. ^^ 공강 시간에 딱히 할 것도 없고 심심하다구요? 자자!! 총여로 오세요~ 3명 이상이 오면 비디오방을 이용하실 수 있구요. 총여에 구비되어 있는 80여편의 비디오 테잎 가운데 골라 보실 수 있습니다. 당일 예약도 가능해요. 그리고 비디오 보신 후 감상문 쓰시면 채택되신 분께는 총여 기관지인 <햇살>에 실어 드리고 상품도 드린답니다.

총여학생회에 비디오 대여?



WWW.UOS.AC.KR/~WOMENSA

*. *여제, 특별한 짐으로 낯설게 말한다.

공감 바/이/러/스

18대 총여학생회

새터 성문화를 되돌아본다.

성문화 지킴이란?

새터는 새내기들에게 차음 대학문화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기회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동안 새터는 혼숙(또는 혼숙이 간접적인 원인 이 되는 성폭력), 근대식 극기훈련, 지나친 음주를 비롯한 문제들이 비판 없이 이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서도 “성”의 문제는 결코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새터 내에서 여학생들이 겪는 불편들을 찾아내고 제공된 성문화를 변화시켜 보고자 시작된 것이 바로 성문화 지킴이다. 성문화 지킴이는 1999년부터 공연과 행사들을 위주로 모니터링 작업을 하여 새터 기간동안 매일 평가 시간을 가졌다. 성문화 지킴이는 성폭력을 감시하고 성적으로 불편감을 주는 내용이 있는지 각 공연들을 모니터링하는 것 뿐 아니라 새터 전체 문화 속에서 여성/남성에 대한 편견이 드러나는 점을 발견해 내고 이에 대해 고민하고자 했다.

다음은 지킴이들이 평가하여서 지킨 내용이다.

지킴이 평가서에 적힌 사항들 1 -2000년

1. 남성성에 대한 왜곡된 시각

- 새내기 장기자랑에서 자백을 하며 웃웃을 낚고 머리로 물건 부수기 등을 함
- 인간 박해(입에 담근 물을 몇 사람이 차례로 입에 담았다가 다시 뱉은 다음 마지막 사람이 마심) 등의 자백 시범을 보일 때 새내기가 망설이자 몇몇 선배가 구호를 외치며 강제로 시범
- 자백 시범 중 츄빙기 바지를 너무 울며 입이 삼키 부분이 두드러져 보임(여학생들이 불쾌해 함)



▶ 대부분 새내기 장기자랑은 남학생들의 자백 시범과 스타크래프트를 패러디한 극이 많았다. 이런 내용에서는 주로 남학생들의 비중이 컸는데 대부분 남성은 힘이 세고 강하다는 고정관념이 나타났다. 또한 폭소를 자아내기는 했지만 일부에게는 다소 불편하거나 지저분하게 느껴졌다. 몇 사람을 우스꽝스럽게 만들어서 살을 타고 사람들을 웃기는 것보다는 새내기 모두가 참여하여 독창성과 내용성을 담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2. 여성성에 대한 왜곡된 시각

- 남자를 여자사냥할 때 여성의 모습을 큰 가슴과 엉덩이, 짧은 스커트 자림에 과장된 몸짓, 애그쉬인 목소리로 표현
- 새내기 장기자랑에서 “(남)이쁜 게 능력이 있구나”, “(여)아아~나 연약한 데-!!”하는 대사를 함
- 미팅장소에서 밥에 든 상대를 보고 여학생이 자신의 얼굴을 손으로 감싸며 “너를 위해 준비했어. 자, 꽃이야” 하는 대사를 함
- 오 교의 게임에서 진 팀에게 벌칙으로 가장 예쁜 여학생이 나와서 장기자랑을 하라고 함



▶ 각종 대사나 역할에서 여성을 평가하는 첫째 기준은 “외모”라는 편견이 드러난다. 또 “미스 00” 등 과의 남학생들을 여장시키는 프로그램이 자주 있는데 여기서 여성은 일련적인 여성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형상화된다. 때때로 가슴, 엉덩이 등 성적인 부분에 대한 표현이 과장되어서 여성의 몸에 대한 편견된 인상을 심어 주기도 한다. 여성의 몸에 대한 보다 올바른 표현 방법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3. 지나친 성적 묘사

- 흰 천에 비친 그림자로 보면 상과 장면을 묘사한 것인데 천을 걷으면 팔 굽혀펴기를 하는 사람과 다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사람의 모습(두 단과대에서 있었음)

▶ 성적 표현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옳은 것만은 아닐 것이다. 특정 집단이나 사회 내에서 암묵적으로 또는 공식적으로 허용되는 표현의 정도도 각각 다를 것이다. 하지만 세터라는 장소의 특성상 ① 일방적으로 한쪽이 보여주고 한쪽은 극정하게 됨 ② 기존 대한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 기들은 무방비 상태임) 등 복합적인 문제 위에서 위와 같은 표현은 일부에게 즐거움을 주는 만큼 또 일부에게는 불쾌하게 다가갔을 것이다.



지킴이 평가서에 적힌 일

레들 2 -2011년

- 새내기 장기자랑에서 남자가 겹쳐 입은 옷을 차례차례 벗는 공연
- 삼각 팬티만 입고 춤을 추는 공연
- 이번 여자 후배들이 오면 더 좋다는 표현

- 술자리에서 “남자애들 필요없어, 여자애들 데려와”, “재학생 여자애들 개머리띠인데 왜 안데려와”, “저 그놈 물반, 고기반이야” 등의 표현

- 과 팀방 시간에 밀착박기, 피바미드 쌓기, 한강철교 같은 게임에서 일부 여학생들의 경우는 같이참여할 때 불편한 경우가 있었다.

- 산행에서 각 코스마다 지정된 게임과 대항으로 했는데 남학생들 위주로 게임이 진행되어서 여학생이 소외되는 면이 있었다.

- 남자를 여장 시켰을 때 지나치게 노출을 하거나 신체일부를 과장하여 표현하는 점

- 자력시범에서 옷을 벗고 몸에 붙인 테이프 뜯는 행위

- 방범복 복색을 내려놓는 대자보
문안 중 첫날밤을 묘사한 내용의 글

- 여학생들을 남학생들만 있는 자로 보내달라고 한 표현

- 여자는 미모에만 신경쓰고 그 여자를 차지하기 위한 난투를 벌이는 내용의 글

- 노래를 부르지 않는 신입생에게 장려가를 부르면서 강요하는 행위

- 노래 가사 중 “여성은 꽃, 생활의 꽃”이라는 표현

좋았던 점

- 일부 과에서 남녀 잡자는 방을 본 바해서 배분한 것

- 문화대에서 거의 모든 새내기들이 장기자랑에 참여하는 모습

- 산행에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모습

- 지나치게 사발식을 강요하는 행위가 예전보다 많이 없어진 점



▶ 술을 강요하거나 사발식을 하는 모습은 점차 많이 변화되고 있는 지점인 것 같다. 하지만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언어 표현이나 역할극에서 여성을 대상화하거나 일반적인 모습과는 다른 형태로 나타내는 복권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이는 기존 사회에서 여성을 외모로만 평가하거나 혹은 복수적인 존재로서 규율하고 있는 모습들이 대학 문화내에서도 반영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성적 표현을 함께 있어서 특정 집단



내에서는 용인되고 자유로울 수 있는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개인들에 대한 배려는 필요하다. 성적인 표현을 자유롭게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자칫한 폭력에 대한 자유만을 허용함으로써 소외되는 개인이 있다면 이에 대한 구성원들의 진지한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전반적·인 새터 성문화

새터는 새내기들이 대학 문화를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기회가 된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새터 문화는 많은 부분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단체 활동이기에 감수해야 할 불편들은 분명히 있다. 하지만 “즐거움을 위해” “단합을 위해”라는 이유로 소수의 불편함이 사소한 것으로 여겨져서는 안 될 것이다.

간과하다 새내기들이 장기자랑을 할 때 대표로 인사를 하고 구호를 외치거나 시상을 하러 나오는 학생의 90% 이상이 남학생이었다. 이는 여학생이 반수를 넘기는 학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또 차원 시험을 보일 때는 새내기일 때도 여학생은 직접 참여할 수 없었으며 스타크래프트 패러디의 경우 여학생의 역할이 한정되어 있고 남학생 보다 인터넷 게임을 그다지 즐기지 않는 적지 않은 여학생 관점

은 그 웃음과 환호 속에서 소외되는 듯 했다.

이런 모습들은 아직까지 여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거나 자신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새내기 장기자랑 준비가 남학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학력이나 스타크래프트 패러디 등 다수의 여학생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내용이 새내기 무대의 주를 이루었다는 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모두가 참여하는 것이 아닌 남들 보기엔 재미있고 자극적인 것을 만들어 내야 하는 부담감 속에서 남학생보다 소극적인 성향이 강한 여학생은 더욱 나서기가 힘들지 않을까? 여학생들은 왜 저렇게 소극적일까, 하는 생각 이전에 여학생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으면 한다.

위의 이야기들 외에도 근대식 근기 훈련이나 언지로 술을 마시게 하는 등 강압적인 문화들도 한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새터가 새내기를 위한 자리인 만큼 앞으로는 새터 준비 과정에서 새학생들이 갖고 있는 문화나 판단 기준은 잠시 접고 새내기에게 “뭐 하고 싶어?”라고 한번 더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





영화 고양이를 부탁해.

-철학 '99 바리

대개의 사람들은 보고싶은 현실만을 본다고 한다.
영화는 나에게 보고싶지 않은 현실을 보여주었다.

20살...을 지나온지 3년이 훌쩍 지났다. 사람들은 모두 20살이 아름답다고 말한다. 하고 싶은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자유롭고,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나이라고들 말한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의 20살이 정말 그런가는 의문이지만...

여기 다섯 명의 20살의 아이들이 있다. 무엇보다 친구가 중요하고, 문자메시지로 서로를 확인하고, 밀레오메에서 쇼핑하기를 즐기고, 떡볶이를 사랑하는... 그러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세상에 첫 발을 디딘 이들에게 세상이 그저 만만하지 않은 않다.

하고싶은 일도 많고 꿈도 많지만 정작 가족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하는 백수 태희, 증권회사에 취직해서 커리어 우먼을 꿈꾸는 예주, 좁은 다락방에서 텍스타일 그림을 그리며 꿈을 키워나가는 지영이, 우쭐한 소녀 비룡와 온조 쌍둥이.

이들의 20살 일상을 지켜보는 내내 맘이 아팠다. 약간은 나에게 동떨어져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대학에 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다만 대학에 들어온 다음에야 대학이 아닌 다른 길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제서야 나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딜 준비를 시작한다. 그 첫걸음이 어떤 모습일지는 아직 모르겠다. 자신만의 가치있는 일에 소신껏 최선을 다하는 태희와 사회에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예주와 꿈을 향해 노력하는 지영이. 이렇게 세 사람 사이에서 나는 현재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다. 이제 이들의 모습은 나의 연재가 되어버렸다.

나름의 상처를 지닌채 그들은 다시 살아가려 한다. 태희와 지영이는 여행을 떠나고, 예주는 저부가가지 인간임을 거부하려 한다. 태희와 지영이가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그들의 상처는 치유되어 있을까? 좀 더 단단한 모습으로 세상에 맞설 수 있을까?

고양이... 고양이는 집에서 아무리 정을 주고 길러도 야생의 습성을 버리지 않는다고 한다. (그것이 사실인지는 모르겠다. 고양이를 길러본 적이 없기때문에...) 20살의 그들은 길들여지지 않는 고양이와 같다. 그리고 그들이 영원히 길들여지지 않는 고양이와 같기를 바란다. 이건 또한 나에게 대한 바람이기도 하다.

사종지도? 호주제 바라보기

이혼(또는 재혼)한 '심마라'가 이혼한 데 주민등록에는 '동거인'?

P씨는 (43세, 재혼, 주부) 이혼하고 전남편의 아이를 데리고 재혼을 했고 재혼해서 아이를 1명 낳았다. 현재 남편도 전 남편 아이를 본인 호적에 올리고 아이의 성도 변경하고 싶어하는데 현재 호주제에 따라서는 달리 방법이 없어 비참함을 느낀다.

자녀는 출생하면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고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하며, 아버지를 양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어머니의 성을 따르고 어머니 쪽의 호적에 입적한다[민법 제 781조].

결혼을 해서 부부가 새 호적을 편제할 때, 남편이 호주가 되고 여성은 남편의 호적에 입적한다[민법 제826조 3항].

이러한 원칙은 아버지에 입적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풍조를 만들어냄으로써 어머니에 입적한 자녀에 대해 차별의식을 발생시킵니다.

호주제란?

민법상 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에 '남성우선적인 호주승계순위·호적편제·성씨제도'와 같은 핵심적인 여성차별조항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사회의 가부장 의식과 인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는 법입니다.

호주제는 폐지 되어야 합니다.

호주중심의 호적법은 남녀차별을 관행화하며 권위주의적이며 종적인 사고를 낳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지에 기초한 관습, 여론을 '미풍양속'이라거나 '전통'이라는 미명하에 방치해 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호주제가 부추기는 '남아선호사상'으로 말미암아 일년에 3만명의 여태아가 낙태되는 등 그 폐해가 너무나 큼니다. 가장 광범위하고 뿌리깊게 여성을 차별해온 호주제가 폐지되어야 합니다.

소개 합니다. 부모성 함께 쓰기 운동.

부모성 함께 쓰기는 1997년 3월 9일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13회 한국여성 대회에 서 부모성(姓)함께쓰기 선언자(이이효재 외 170명)들에 의해 선언된 호주제 폐지를 위한 문화운동입니다. 예를 들면요~ 정진선미, 이박수정 처럼 말입니다.

후대에 갈수록 복잡해지지 않을까요?

부모성 함께 쓰기는 문화운동의 한 방법입니다. ek라서 자신이 원하는 성을 부모의 양성(性)중 하나씩 골라서 사용하면 됩니다. 가령 정진선미 중 진을 선택하고 이박수정 중 이를 선택하여 진이 ○○로 사용하면 되겠죠

QUIZ로 알아보는 호주제~~

맞는 답에 ○표를 하세요.(중복 답 있을 수 있음)

- 호주제는 언제 만들어졌나?
① 고려시대 ② 조선시대 ③ 일제시대 ④ 해방 이후
- 누가 만들었나?
① 공민왕 ② 세종대왕 ③ 일본 총독부 ④ 이승만 대통령
- 왜 만들었나?
① 족보 대신 ② 세금 ③ 부역 ④ 징병 ⑤ 인구 파악 ⑥ 식민수탈에 필요한 ②,③,④,⑤
- 김포에 사는 홍부씨는 딸이 10명 있다. 홍부씨 사망 후 호주승계 1순위
는?
① 당연히 부인 ② 시집간 딸 ③ 시집 안 간 딸 ④ 외손자
- 그런데 홍부씨가 외도해서 낳은 아들이 나타났다. 호주승계 1순위?
① 그래도 부인 ② 시집간 딸 ③ 시집 안 간 딸 ④ 외도해서 낳은 아들
- 호주이던 시업지와 장남인 남편이 동시에 사망했다. 아내, 딸(하바드 줄
업), 아들(1살),
분가 안 한 시동생중 호주 승계 순서는?
① 딸-아들-아내-분가 안 한 시동생
② 아내-딸-아들-분가안한시동생
③ 아들-분가안한시동생-딸-아내
④ 분가 안 한 시동생-아들-딸-아내

7. 심순애와 이수일이 결혼해서 이비극을 낳고 이혼했다. 심순애는 어린 이비극을 데리고 너그러운 나관대와 재혼해서 나행복을 낳았다. 심순애는 결국 이비극과 나행복 두 아이의 엄마인데 두 아이 성이 달라 고민이 많다. 해결방법은?

- 재혼한 아버지의 성을 따를 수 있다.
- 친아버지가 친권을 포기하면 된다.
- 재혼한 아버지가 입양한다.
- 친아버지가 친권을 포기하고 호적에서 자식을 내주어 재혼한 아버지가 입양하지 않는 한 이비극을 어쩔 수 없다.
- 어떤 경우에도 성을 바꿀 수는 없다.

8. 세계에서 호주제가 있는 유일한 나라는?

- 한국 ② 중국 ③ 북한 ④ 호주

9. 일본이 1947년에 호주제를 없앤 이유는?

- 남녀평등 헌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 천황의 차손이기 때문에
- 비민주적이기 때문에
- 미국의 압력을 받아서

정답 : 1-③ 2-③ 3-⑥ 4-③
5-③ 6-④ 7-④ 8-① 9-①

수강신청?

뭘 듣지? 이젠 언제?

여성 문제 관련한 강의를 소개합니다.

▶여성학

여성해방에 관한 주요 사상과 이론들을 검토하고, 가부장제 사회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억압경험에 관한 감수성과 해석능력을 높이며, 남녀평등한 미래사회에 대한 전망을 갖고 실천방안을 모색한다.

2002년 1학기 8강좌 개설

대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배워요~~(강좌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여성학에 대한 이해> <성, Sexuality에 대한 이해><성차 - 여성과 남성, 그 같음과 다름><여성과 가족, 결혼><여성 노동> 등

▶성과 사랑

여성주의 시각에서, 성과 사랑의 근대적 형성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성과사랑의 결합방식과 성격을 이해하고, 더 나은 성과 사랑의 재구성 방안을 모색한다.

2002년 1학기 7강좌 개설

이런 것들을 배워요~~

<성(sex/gender/sexuality)이란?> <성의 사회화><포르노그래피><성윤리><성/ 사랑/ 결혼><동성애 이해하기><성폭력> <피임과 낙태> 등

☀여학생 휴게실 힛터를 소개합니다.

밤샘작업으로 잠시 쉬고 싶은데... 어디서 눈 좀 붙일 곳 없을까? 저는 이제 고민을 안 해요. 힛터 방을 이용하면 되니까요. ^^

그런데 남학생들의 원성이~~!! 그거야 남학생 휴게실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여학생 휴게실이 먼저 생긴 것일까요? 그것은 여학생 복지를 위한 총여학생회의 지속적인 요구(여학생들의 의견을 바탕으로한)와 여학생들에 대한 배려 차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잔디밭에 누워서 낮잠 지는데, 맘 편히 자유로운 여학생이 몇이나 될까를 생각해보면 어쩌면 답은 금방 나올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쉴 공간은 너무나 기본적인 학생들의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남학생 휴게실이 없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서 빨리 남학생들에게도 휴게실이 생기도록 다른 학생회와 함께 총여학생회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치 : 학생회관 2층에 있어요.

☀ liboo -여성학 도서 대여

도서관도 있는데 월~ 헬썹하게 총어 가서 빌려... 라고 생각
마시고 편하게 총어로 오세요. 도서관에 없는 자료도 있고(여
성학 서적 60여권 구비), 여성학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
람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작년에 **여성학 생활자치도서관**
liboo가 탄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면 누구나 환영이에요~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네요.
위치 : 총어학생회 안에 있어요

☀ 화장실 비상벨

화장실에서 성폭력의 위협을 느낄 때, 성폭력이 일어났
을 때 이를 알리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학생회관 각종 여자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긴급상황이 일어났을 때 누르시면 됩니다.

☀ 학생생활연구소

이용해 보세요^^

나는 어떤 일이 좋은지, 적성검사^^

나의 대인관계등 성격검사도 받아 보시구요^^

학생들의 원만한 대학생활을 위해 제반문제에 대한 연
구를 실시하며 각종 심리검사와 개별 및 집단상담을 실
시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일상생활에 보다 효율적으로
적응토록 지도하고 자아개발을 이루게 하며 바람직한
대학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가. 대학생활 및 대학생 의식 등에 관한 연구

나. 각종심리검사 실시(적성, MMPI, MBTI, 자아실현, 직
업흥미)

다. 개별 및 집단상담

라. 취업정보제공 및 상담

마. 특강 및 세미나 실시

바. 기타 대학생활에 관한사항

위치 : 인문학관 1층

신나는 문제풀기

START!!

1. 여성행방에 관한 주요 사상과 이론들을 검토하고 남녀평등한 대학사회에 대한 전망을 갖고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립대에 개설된 강좌입니다.
2. 여성주의 시각에서, 성과 사랑의 근대적 형성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성과사랑의 결합방식과 성격의 이해하고자 개설된 강좌입니다.
3. 민법상 **성**을 규정함에 있어 '오조'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
4. 학생회관 2층에 위치한 여학생들만의 쉼 공간!! 대화방, 공부방, 시외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5. 2001년 처음 만들어진 여성학도서를 대여하는 자치 기구입니다. 여성학생활자치도서관
6. 시립대의 여학생들의 대표기구입니다. 여남평등한 시립대를 만들고 여학생들의 이해와요구를 대변하는 공간이지요. 학생회관 2층에 있습니다.
7. 인문학관 1층에 있고요, 학생들의 온전한 대학생활을 위해 제반문제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고 각종심리검사 실시(적성, MMPI, MBTI, 자아실현, 직업용매)합니다.
8. 대학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갖게 되는 곳이지요~~ 바로 지금 참가하고 계십니다. 새 내기 새로 배움터의 존말.
9. 오조제가 만들어진 때
10. 18대 종여학생회의 이름입니다. 공금 ○○○○
11. 종여학생회는 새터의 올바른 ○○○○를 정착하고자 왔습니다.
12. 각 학생회들, 동아리방, 학생계, 그리고 학생식당과 학생서비스센터등 바로 우리들을 위해 만들어진 곳입니다.

13. 여학생 오조제의 이름
14. 오조 모듬과 가지고 있는 권리로 내담에 대한 결정권은 나에게 있습니다.
15. 개인적 자유로운 성격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성격 소외된 영혼들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16. 성폭력 관련 제법 압력과 자위력의 관련성을 위해 본고에 설립되었습니다
17. 성폭력의 영향과 성폭력 사건의 조사, 처리 및 대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시립대에 존재하는 위원회 - 성폭력 ○방○책○원
18. 20살의 여학생을 담은 영화. 출연 : 배도나 등
- 19 2002 종여학생회장은?
20. 여학생의 이름 대학교에 입학한 1학년 학생을 가르키는 말.

소개합시다~~

이성문화 연구동아리 MUST

Miraculas Utopia of Sisterhood Tank 의 학자로서 여성과 문화의 조망하고 생애를 전행하는 동아리입니다 여성문화에 관심 있으신 분들, 고민이으신 분들, 외로이신 분들, 놀고 싶으신 분들, 등등..

학관 3층으로 놀러오세요. 언제든지 대환영입니다.

http : www.lil.to/mymust





새터 2002

어플말 시오

살림말 119

부문강좌

생각말 시오, 마필다

전행말 시오, 마필다, 119

자료집

연음말 시오랑 마필다랑

도움말

그양어를 부탁해 글 써준 바리

언소에서 출판까지 119

편지말 마필다, 시오

펴낸 곳 : 서울시립대학교 총여학생회

TEL : 02-2210-2367, 2859

MAIL : 총여학생회장 정진선씨(마필다) - ida0723@hanmail.net

부총여학생회장 어박스경(시오) - sio299@hanmail.net

나온날 : 2001.02.25 그날에...

** 어제, 똑같은 제목으로 낯설게 말한다.

공감 바/어/려/스

18대 총여학생회



WWW.UOS.AC.KR/~WOMENSA

나도 성문화 지킴이

새터 ing



새터를 바라보면서 다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모니터링 해주신분을 기다립니다. 아래 문항을 정성껏 작성해서 총어로 보내 주세요. 좋은 모니터링을 선정해 소정의 상금을 드립니다.

♣ 단대나 과의 행사가 어떤 것이 있었나요?

♣ 진행된 행사 중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것을 강요한 것이 있었나요?
(억지로 술 권하기/ 프로그램 참여를 강제로 시키는 것 등...)

♣ 진행된 행사중 한쪽성을 비하하거나 소외시키는 내용이 있었나요?

♣ 프로그램 중에 성적으로 대상화 시키는 것은 없었나요?
(옷 벗기기 게임/ 성행위를 묘사한 듯한 장면연출 등)



♣ 진행되었던 행사중 칭찬해 주고 싶었던 것이 있었다면... 칭찬해 봅시다!!

[QUIZ! QUIZ!]

다 읽어 보셨나요?

아 다음 답안지에 정답을 적어

총 100점의 바이러스를 할아오시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도전하세요 START!!

1		11	
2		12	
3		13	
4		14	
5		15	
6		16	
7		17	
8		18	
9		19	
10		20	

누구?

무슨과?

몇학번?

현락은?



28



싱크래함이 다른 나만의 하구, 오! 애니데이.

